

## 《證治心傳》의 의학사상 고찰 - 溫病理論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校室  
丁彰炫\*

### Study on the medical philosophy of *Zheng Zhi Xin Chuan*(證治心傳)

- based on the theory of acute febrile disease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Zheng Zhi Xin Chuan*(證治心傳) is a compact compilation of 14 discussions on medicine, written by Yuan Ban(袁班) in the late Ming-early Qing period.

**Methods** : To survey the scholarly position of Yuan Ban(袁班) in the history of Wenbing by systematically analyzing and organizing Wenbing related theories in *Zheng Zhi Xin Chuan*(證治心傳).

**Results & Conclusions** : In his book, YB suggests concepts such as 'mainly attack upper heater(多犯上焦)', 'transmission to the nutrient phase(轉入營分)', 'sequential transmission(順傳)', 'abnormal transmission(逆傳)', 'dryness invasion of human body in autumn(秋傷於燥)'. In the history of Wenbing, it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that the concept of weiqiyingxiebianzheng(衛氣營血辨證) and abnormal transmission to the pericardium(逆傳心包) were originally suggested by Ye Tianshi(葉天士). However,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se concepts are traced back to the contents of YB's publication, nearly a century before Ye's time. In addition, YB's discussion on '秋燥' was highly advanced than any other scholar of his time, hinting his influence on medicine thereafter.

**Key Words** : *Zheng Zhi Xin Chuan*(證治心傳), Yuan Ban(袁班), acute febrile disease, Ye Tianshi(葉天士), Wu youke(吳又可)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Received(26 October 2015), Revised(11 November 2015),

## 1. 서론

《證治心傳》은 중국 明末清初시기에 袁班(字. 體菴)이 지은 책으로, 총14편의 논설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의서이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병인, 병증, 진단, 치료, 예방, 의료윤리 등 의학 전반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역대 의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이 심득한 바를 기술하였다. 그 중 온병 관련 논술은 의학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는 吳又可와 같은 江蘇地域에 거주하면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을 똑같이 경험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의론사이에는 서로 부합하는 면이 있다. 온병을 상한과 다른 병으로 인식하고, 전염병의 원인으로 '戾氣', '惡氣'를 제시한 것이나, 攻下法을 주로 사용하고, 舌苔를 중시하는 등은 둘 사이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질병의 전변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인다. 吳又可는 '疫有九傳論'을 제시한 반면에, 그는 "多犯上焦" '肺衛', '轉入營分', '順傳', '逆傳', '秋傷於燥'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 중 '多犯上焦' '肺衛', '轉入營分', '順傳', '逆轉' 등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섭천사가 처음 제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미 100여년 전에 袁班이 그 단초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趙觀瀾도 이점에 주목하여 按語에서 "세상 사람들은 '溫邪上受'란 말이 섭천사가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섭천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世人僅知'溫邪上受'一言, 葉氏創解, 而不知葉氏前已有言之哉.)"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喻嘉言에 앞서 《내경》의 "秋傷於濕"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그의 논설은 동시대의 吳又可와 비슷하면서도 吳又可에 비해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이며, 후세에 미친 영향 또한 심대하다.<sup>1)</sup>

Accepted(16 November 2015).

\* 본 논문은 2015년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2015. 10. 24.)에서 발표한 논문 "『證治心傳』의 溫病學理論"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이점은 趙觀瀾의 按語에도 드러난다.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0. "瀾按: 溫熱者, 四時之常

劉景原是 袁班과 《證治心傳》에 대해 '온병학 발달사에서 어디에도 관련 기록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아는 이가 없지만, 그의 업적은 놀랄 만큼 위대하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이후 많지는 않지만 몇 편의 논문<sup>3)</sup>이 발표되었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병학 관련 저술 및 교재 등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필자는 《證治心傳》 중의 온병 관련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온병학 발달사에 있어서 袁班의 학문적 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 2. 저술 및 간행시기

이 책이 정확히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史可法の 序文을 통해 그 대략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史可法(1601-1645)은 明末 南明 왕조의 兵部尙書를 지냈으며, 1645년 청군에 의해 남명이 망할 때, 양주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사망하게 된다. 序文에 "幕賓袁子體庵"이라 한 것을 보면, 당시 袁班이 幕賓의 신분으로 史可法을 보좌했던 것으로 보인다.

史可法の 序文 말미에 "時在崇禎歲次癸未仲秋月, 兵部使者溧陽史可法識"라고 하였는데, 崇禎癸未年은 崇禎16년, 즉 서기 1643년이다. 따라서 늦어도

氣也; 溫疫者, 天地之惡氣也. 蓋常氣以常法治之, 惡氣以峻法治之, 理勢然也. 先生治疫, 重用攻下, 除惡務盡耳, 與吳又可法暗合. 其時各居一境, 所治之症大略相同. 袁氏辨舌苔垢膩濃薄, 以定攻邪之輕重; 又辨明溫熱與瘧疫有間, 豈可混淆以誤人哉. 況先生濟世心切, 每以慎審爲本, 其學邃深在又可之上. 且吳氏雖有九傳方法, 未將病理闡明, 書雖流傳, 惜乎混疫於溫, 貽誤亦多, 不足爲法也. 或謂當時彼此各居一邑, 未能面商至理爲憾, 如袁吳同處一堂, 互相討論, 吳氏必不致混淆立論, 溫熱原理毋待葉氏發明之."(《溫熱溫疫辨》)

2) 劉景原. 溫病學的形成與發展及文獻板本源流(1). 中醫教育. 2003. 22(1). pp.60-63.

3) 於麗雅, 周麗雅. 《證治心傳》對溫病學的貢獻,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4. 12(2). pp.14-15.

曹力明, 王秀蓮. 《證治心傳》溫病學思想淺析. 山西中醫. 2009. 25(11). pp.61-62.

韓冰, 程磐基. 袁班《證治心傳》外感熱病學思想探吐. 四川中醫. 2012. 30(4). pp.53-55.

吳少俊, 吳有性《溫疫論》, 袁班《證治心傳》與中醫溫病學形成的研究. 廣州中醫藥大學 박사논문. 2009.

1643년 가을 이전에 저술을 마친 것으로 파악한다. 吳又可의 溫疫論이 완성된 시기가 1642년이니까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sup>4)</sup>

그러나 실제 저술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隨筆記錄”(〈序文〉), “隨時筆記, 以免遺忘”(〈溫熱溫疫辨〉)이라 한 것을 보면, 당초 책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중요한 내용을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둔 것이 쌓여 한 권의 책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史可法の 序文 말미에 “軍務로 바쁜 와중에 틈을 내어 검토하고, 전쟁이 잠깐 뜸한 때를 기다려 급히 조판공에게 넘겼다.(於戎馬倥傯之際, 抽閒閱勘, 俟鋒焰稍息, 亟付手民.)”라고 한 것을 보면, 교정까지 마치고 조판의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645년 淸軍에 의해 史可法の의 군대가 전멸하고 양주가 함락되면서 이 책은 당시 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溫疫論》이 당시 간행됨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하면 袁班 개인은 물론이고 온병학계 전체적으로도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처음으로 간행된 것은 그로부터 280년이 지난 1924년에 이르러서이다. 《歷代中醫珍本集成》의 內容提要에 따르면, 이 책은 명말 의가 袁班이 승정16년(1643년)에 지은 것으로, 원래는 抄本의 형식이었고 활자로 간행되지 못했다. 청 咸豐8년(1858년) 趙觀瀾이 袁班의 玄孫으로부터 이 책을 입수하여 다시 옮겨 적고 按語를 달았다. 후에 裘吉生이 《三三醫書》에 수록하여 간행하였는데(1924년)<sup>5)</sup> 이것이 최초 간행본이다.

또 책 첫머리 “秦郵의 體庵 袁班이 편집하고, 珠湖의 雙湖 趙觀瀾이 논평하고, 鴛湖의 石生 徐樹箴이 收藏하던 것을 紹興의 慶元 裘吉生이 간행하다.(秦郵袁班體庵輯, 珠湖趙觀瀾雙湖評點, 鴛湖徐樹箴石生珍藏, 紹興裘慶元吉生刊行).”라고 되어 있는데, 裘

吉生이 徐石生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을 간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있다. 《三三醫書》중의 提要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현재 시중에는 1990년 上海三聯書店에서 간행한 《歷代中醫珍本集成》과 1998년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간행한 《三三醫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袁班의 생애 및 저술 동기

#### 1) 생애

袁班의 행적에 대해서는 史書에 관련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 史可法の의 序文과 몇몇 기록에 근거하여 짐작할 뿐이다.

우선 史可法の의 序文에 따르면, 袁班은 字가 體庵이며 珠湖<sup>6)</sup> 근처(明代 秦郵, 지금의 중국 강소성 高郵縣)에서 살았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고 이치에 밝아서 그 재주가 뛰어난데다 그 마음 또한 어질었다. 일찍이 부모님의 병시중을 들면서 두루 방서를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서 비법을 전수받았다.<sup>7)</sup>

淸初 劉獻廷(1648-1695)이 저술한 《廣陽雜記》에 袁班이 질병을 치료한 一例가 보이는데, 그중에 袁班을 高郵 지방의 神醫라고 칭송하고 있다.

“子儒가 말하기를, ‘명말 高郵 지방에 袁體庵이란 자가 있었는데 神醫였다. 어떤 이가 鄉試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발광하여 웃음이 그치지 않아서 耑醫에게 진료를 청하였다. 耑醫가 놀라 말하기를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고 열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그때는 속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지체하다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까 염려되오. 만일 가는 길에 鎮江을 건너거든 꼭 何氏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으

4) 청왕조가 수립된 1636년부터 명왕조가 멸망한 1644년까지 이 기간에는 흉년과 전쟁으로 기아가 극심했고, 전염병 또한 창궐하였다. 《溫疫論》과 《證治心傳》이 이 시기에 저술된 것은 이러한 정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6) 珠湖는 중국 江蘇省 高郵市에 위치한 高郵湖의 異名이다. 중국 제6대 담수호이며 강소성 제3대 담수호로 壁瓦湖라고 한다.(http://baike.baidu.com)

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幕賓袁子體庵, 顧影無儔, 居珠湖之濱. 喜讀書, 達通塞. 其才如五石之瓠, 不適於用, 然濟人利物之心, 未嘗去懷. 早年侍親疾, 博究方書, 深得異人秘授”(〈序文〉)

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何氏에게 전할 편지를 맡겼다. 그 사람이 鎮江에 이르렀을 때는 질병이 이미 나은 상례였지만, 그 편지를 들고 何氏를 찾아갔다. 何氏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某公이 너무 기쁜 나머지 발광하였는데, 심규가 확 열려 다시 닫히지 않아 그런 것이라, 藥石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태로이 여기도록 해서 동요케하고 죽는다는 것으로서 겁을 주어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면 심규가 닫힐 것입니다. 건강에 이를 때쯤이면 다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읽고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 떠나 갔다’ 라고 하였으니, 아 정말 신묘하구나.(子儒言明末高郵有袁體菴者, 神醫也. 有舉子舉於鄉, 喜極發狂, 笑不止, 求體庵診之. 驚曰疾不可爲矣, 不以旬數矣, 子宜急歸, 遲恐不及也. 若道過鎮江, 必更求何氏診之. 遂以一書寄何. 其人至鎮江, 而疾已愈. 以書致何, 何以書示其人. 曰某公喜極而狂, 喜則心竅開張而不可復合, 非藥石之所能治也. 故動以危苦之心, 懼之以死, 令其憂愁抑鬱, 則心竅閉, 至鎮江當已愈矣. 其人見之, 北面再拜而去. 吁, 亦神矣.)<sup>8)</sup>

위 내용은 陸以湜(1802-1865)의 《冷廬醫話》<sup>9)</sup>에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sup>10)</sup>

또 《歷代中醫珍本集成》의 내용제요에서 《揚州府志》의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이십 세부터 10년

을 두문불출하며 읽지 않은 의서가 없을 정도로 두루 섭렵하여 그 명성이 남북으로 자자하였다.(自二十歲, 閉戶十年, 岐黃家書, 無所不讀, 名噪南北.)<sup>11)</sup> 라고 했고, 《證治心傳》외에 《袁體菴經驗方》을 저술하였는데, 喻嘉言이 이를 자못 소중히 생각하여 “班之醫, 固有可傳者矣”<sup>12)</sup>라 했다고 한다. 또 《高郵縣志》에 “10년을 두문불출하여 읽지 않은 의서가 없을 정도로 두루 섭렵하였고, 맥을 보면 민첩하기가 귀신같아서 강북의 명이라고 불리었다.(閉戶十年, 岐黃家書, 無所不讀, 按脈極捷如神, 稱江北名醫.)”<sup>13)</sup>라고 하였다.

또 袁班 스스로가 “歷驗心得”(《溫熱溫疫辨》), “歷驗不爽”(《治病必審四時用藥說》), “歷驗心法”(《治病必審四時用藥說》), “參以臨證經驗”(《序文》)이라 말한 것을 보면 실제 상당히 많은 임상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袁班은 어려서 부모님의 병구완을 하는 과정에서 두루 의서를 섭렵하고 다른 사람의 비법을 전수하여 의술을 습득하였고, 당시 양주 일대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당시 양주에 주둔하고 있던 史可法의 군부에 의사로서 초빙된 것으로 추측된다.

짐작컨대, 史可法이 序文을 쓴 이듬해인 1645년 청군이 양주를 함락할 때 史可法이 끝까지 항거하다 사망하고, 그 후 청군이 대대적인 도륙을 저지르는데, 아마도 이 때 마료였던 袁班도 史可法과 운명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책이 미처 간행되지 못하고, 저자 또한 사망함으로써 그의 특출한 학술 사상이 세상에 펼쳐지지 못한 것이다.

8) 劉獻廷, 廣陽雜記. 북경. 중화서국. 1997. p.176.

9) 《冷廬醫話》는 1858년에 완성된 후 手抄本으로 전해지다가 1897년에 간행되었다.(陸以湜, 冷廬醫話.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1996. p.1. 校注說明)

10) 이외에도 《冷廬醫話》에 袁班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揚州府志》辨《高郵志》稱袁體庵班按脈極捷, 以爲醫之切脈, 以審慎爲工, 捷於按脈, 乃市醫苟且之爲, 班斷不如是云云. 吁! 今之醫者, 鮮不以捷爲工, 即延醫者, 亦皆以捷爲能, 盍深味此言?”(朱偉常, 冷廬醫話考注.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93. p.20.)

1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1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朱偉常의 《冷廬醫話考注》에도 《揚州府志》의 관련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江西喻昌, 生平不許可人, 而寓意草中特稱高郵老醫袁體菴經驗方, 皆用陰陽兩平之藥, 令人有子, 皆得陰平陽秘之旨. 然則班之醫, 固有可傳者矣.”(朱偉常, 冷廬醫話考注.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93. p.21.)

13) 程磐基, 韓冰, 程磐基. 袁班《證治心傳》外感熱病學術思想探吐. 四川中醫. 2012. 30(4). p.53.

## 2) 저술 동기

첫째,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證治心傳·溫熱溫疫辨》에서 “근래 극심한 가뭄과 기근, 전쟁의 여파로 돌림병이 생겨 서로 전염시키는데, 절대로 발병 日數에 얽매어서는 안된다(惟近年凶荒飢饉, 兵火之餘, 釀成疫癘, 互相傳染, 切勿拘執日數).”<sup>14)</sup>라고 하여, 당시 전염병이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吳又可의 《溫疫論·序》에도 “崇禎 辛巳年에 疫氣가 流行하여 山東, 浙省, 南京, 北京 일대에 환자가 특히 많았다.(崇禎辛巳, 疫氣流行, 山東浙省, 南北兩直, 患者尤多).”라고 하였다. 崇禎 辛巳年이면 1641년이다. 吳又可가 《溫疫論》을 완성한 것이 1642년이니까 《證治心傳》의 완성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두 사람의 저작이 세상에 나왔을까? 그것은 당시에 그만큼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많은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기존 치료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 도달했던 것이다.

둘째, 기존 의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溫補하며, 攻下를 주저하는 당시 의학의 습속을 비판하였다.

《證治總綱》에서 “내가 논한 방법은 모두 온보의 폐단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다.(余所論方法, 皆爲挽回溫補之弊而設, 亦不得已也.)”<sup>15)</sup>라고 하여 그의 저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溫熱溫疫辨》에서 “후인의 지식이 얕아 의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상한론의 傳經, 日數 등의 이론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오치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後人識淺, 殊難領悟, 惟拘執傳經限日成法, 遂致遺誤者多).”<sup>16)</sup>라고 하여 온병을 치료할 때 기존의 상한법에 얽매는 것을 비판하였다.

趙觀瀾도 “선생이 책을 저술하신 때인 崇禎甲申

以前은 바로 사방이 혼란에 빠진 시기였다. 그 溫補가 해를 끼쳤다고 하신 것은 은근히 薛立齋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다. 그 당시 사대부들이 溫補에 빠져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많았다.(先生著書時, 當崇禎甲申以前, 正四方擾亂之日. 其所謂溫補爲害, 乃隱斥薛立齋之誤. 其時士大夫惑於溫補, 致誤者多.)”<sup>17)</sup>라고 하였다. 崇禎甲申이면 1644년으로 명이 멸망한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즈음은 전란과 가뭄으로 인한 기아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기였으니, 당시 열성전염병에 상한법을 사용하거나, 溫補之劑를 사용하여 많은 폐단이 속출하였던 것이다.

## 4. 편제

총1권이며, 序文 외 證治總綱, 治病須明陰陽虛實論, 治病必審四時用藥說, 辨症訂方必先審四診記, 用藥宜精審慎勿疏忽記, 胃爲生化之源記, 保身可以却疾說, 侍疾應知論, 痰癆咳嗽記, 中風腫脹辨, 虛勞說, 幼科治驗記, 胸脇腹痛肝胃氣逆辨, 溫熱溫疫辨 등 14편의 논설로 구성되어 있다. 매 편의 끝에는 趙觀瀾의 按語가 있다. 이 중에서 온병과 관련이 깊은 것은 ‘治病必審四時用藥說’과 맨 끝의 ‘溫熱溫疫辨’이다.

## 5. 학술 사상 및 특징

### 1) 의학 전반에 대한 학술 사상

(1) 세심하고 신중한 진단을 강조.

그는 진단을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望聞問切을 통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상세한 토론을 거친 뒤 표본, 표리, 허실을 구분하고, 四時寒暑의 기후특징을 감안하여 처방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up>18)</sup>.

먼저 형색을 살피고 병의 원인을 자세히 묻고,

14)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1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4-5.

1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1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

1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夫醫之診病, 必以審慎爲本. 若捷於按脈, 乃市醫苟且之爲, 班斷不如是. 每治病證, 莫不以望聞問切, 細加討論, 然後辨標本, 別表裏, 虛實之異, 參四時寒暑之候, 隨症定方.”(《證治總綱》)

말소리를 듣고 체형의 肥瘦를 살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묻고, 흉복부를 눌러보고,舌苔를 보고,갈증의 여부와 대소변의 상태를 물은 다음,가만히 헤아려보면 병의 한열, 허실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그러한 후에 맥의 부침지사를 참고하면 포본, 허실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맥을 살피고 병증을 변별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2)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용약을 강조함.

袁晔은 약을 사용할 때는 약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용약이 부적절할 경우 자칫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sup>20)</sup>고 하여 세심한 용약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물탕이나 사군자탕 등의 화평한 약조차도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또 그는 병의 경중에 맞게 용약의 경중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邪氣가 上焦, 心肺, 頭目, 清竅 등을 침범했을 때는 輕淸한 약을 써야하며 무거운 약을 쓰면 도리어 中下焦를 손상할 수 있다<sup>21)</sup>고 하였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大病에는 과감하게 大藥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2)</sup>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약성이 가벼운 약이나 또는 소량의 약만으로 위중한 병을 치료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大病에는 마황, 강황 등으로 大散하고, 대황, 망초

등으로 大攻하고, 부자, 건강, 육계 등으로 大溫하고, 석고, 황련 등으로 大淸하고, 인삼, 황기 등으로 大補하고, 숙지, 천문동, 맥문동 등으로 大滋陰한다고 하였다. 또 大寒症에는 부자를 3돈에서 6돈, 大熱症에는 석고를 8돈에서 5냥까지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용약에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온보를 반대하고, 과감한 공하를 강조한 점이다. 이는 그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의 의서들이 대부분 ‘補虛’를 중시하여<sup>23)</sup>, 안에 實邪가 있는데도 겉으로 드러난 허약 증상만을 보고 보법을 써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수가 많음을 지적하였다.<sup>24)</sup>

그는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허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sup>25)</sup> 허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하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늦추다가 뒤늦게 공하를 하거나, 또는 도리어 假虛證에 속아 補法을 시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26)</sup>

자연스레 그는 조기의 과감한 공하를 주장하게 된다. 實症이 보이면 조기에 攻邪해야 하며, 공하를 주저하여 시일을 끌다가 사기가 정기를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sup>27)</sup>

1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3. “診視之要, 必先詳察形色, 然後細問致病之因. 聞其聲音啞嚶, 察其肌膚肥瘦, 問其苦欲, 按其胸腹, 視其舌苔, 詢其渴飲, 二便通塞, 苟能不憚煩瀆, 則在裏之虛實, 寒熱已得其要領矣. ---若潛心推測, 則病之寒熱, 虛實, 自無狐疑之惑矣. 然後參乎脈之浮沉, 遲數, 則標本, 虛實更有鑒別矣. 余於切脈辨證, 尤加慎審, 未敢輕忽.”(〈辨症訂方必先審四診記〉)

2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5. “治病之要, 首辨藥性. 用藥得當則救人, 用藥不當則殺人.”(〈用藥宜精審慎勿疏忽記〉)

2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17-18. “然用藥之道, 各有次序, 凡邪犯上焦, 心肺, 頭目, 清竅, 則宜輕淸之品, 不宜重味, 藥過病所, 反傷中下.”(〈用藥宜精審慎勿疏忽記〉)

2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7. “余治大病, 必用大藥, 歷獲奇效.”(〈用藥宜精審慎勿疏忽記〉)

2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近世之醫書, 每多以補虛立論.”(〈證治總綱〉)

24)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 “至大實有羸狀故, 因穢濁, 實邪盤踞在內, 既不得見而知之, 又爲宜補之說橫於心中, 往往惑於假虛之病象, 而人多以下爲畏途矣.”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 “遂使假虛之證誤於溫補, 而戕生多矣.”(〈證治總綱〉)

2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 “更有世之不明虛實之宜, 乃不善用者之誤.”(〈證治總綱〉)

2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 “不肯輕用下法” “遂妄用下法以決裂.”(〈證治總綱〉)

“時醫用下而無效, 庸醫用下而致禍, 遂使假虛之證誤於溫補, 而戕生多矣.”(〈證治總綱〉)

2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7. “若患實症, 攻邪宜早” “慎勿畏攻, 牽延正爲邪傷.”(〈用藥宜精審慎勿疏忽記〉)

(4) 도덕적 양생론과 無病勿服藥論을 제시

그는 <證治總綱>에서 “이미 병든 다음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온전하게 돌이킬 수 없으니, 최상의 방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병들기 전에 다스리는 것보다 묘한 것이 없다.(惟病之已成, 雖有良工, 終不能保其十全, 欲求最上之道, 莫妙於治其未病.)”라고 하였으니, <내경>의 “不治已病, 治未病”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는 양생의 총강으로 ‘淡泊’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비우면 건강하지만, 욕망이 과하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 근원은 다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렇게 해서 생긴 병은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다.<sup>28)</sup> 이는 <내경>에서 “恬憺虛無”를 양생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 것을 따른 것이다.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일 뿐(然而致病之源, 乃自取之耳)”이라는 말은 그가 섭생에서 있어서 내면의 정신수양의 중요성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잘 드러내준 말이다.

그는 성생활을 삼가하고, 風寒을 멀리하며, 음식을 절제하고,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생활규범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항상 도리에 맞게 행동할 것이며, 음덕을 쌓아야 함도 강조하였다.<sup>29)</sup> 이처럼 그의 양생론은 단순한 신체적 양생론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 양생론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가 온보약의 남용을 반대한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병후 조리하는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병이 없을 때 보약으로 調養하는 것은 무익할 뿐

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sup>30)</sup>고 하였으며, 병후에도 정기가 이미 회복되었다면 補藥의 복용을 즉시 그쳐야하며, 만일 장기간 복용하면 자칫 다른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sup>31)</sup>고 하였다. 이는 당시 양생을 명분으로 溫補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던 것을 경계한 말이다.

(5) 경전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강조

①경전 연구를 중시

그는 의학 경전의 연구를 강조하여, 의학의 깊은 이치를 터득하려면 반드시 <素問>, <靈樞>와 <傷寒>을 읽어야 한다<sup>32)</sup>고 하였다. 실제 그의 논설 중에도 <內經>, <傷寒>, <金匱> 등의 내용을 수시로 인용하고 있다.

그는 일체의 질병은 모두 陰陽 두 氣로 귀결되며, 陰陽을 알면 질병의 表裏, 虛實, 寒熱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했다. 따라서 음양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학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3)</sup>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2. “切勿畏攻而留邪”(〈治病必審四時用藥說〉)

2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1. “古人以淡泊爲本, 身多強壯; 今人以嗜欲所耽, 每多羸弱, 病患纏綿, 推其所以致病之源者, 皆性耽淫樂, 未滿二八而精道已破, 本源先竭, 於是六淫戾氣乘虛襲入, 一切疾病生於內虛之體, 治之非易, 況世無良醫, 不明致病之因, 妄投湯藥, 不死於病而死于庸醫之手者多矣. 然而致病之源, 乃自取之耳.”(〈保身可以却疾說〉)

2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1. “守聖訓七損八益之戒, 慎風寒, 節飲食, 不貪醇酒, 不妄作勞, 篤重倫常, 濃培陰德”(〈保身可以却疾說〉)

3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無病不宜以藥餌爲調養, 非徒無益, 而反有損, 以其藥性各有偏執故也.”(〈證治總綱〉)

3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若正氣已復, 即宜停止, 防久而增氣, 反生他患, 切勿以補益之劑, 可以久服.”(〈證治總綱〉)

3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若欲明醫理之淵微, 必先考審<素問>, <靈樞>之秘, 熟讀仲景<傷寒>之旨, 自有左右逢源之妙.”(〈證治總綱〉)

3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一切疾病, 或由天時感化, 或因情志感傷, 或本質偏虛, 其成者皆歸二氣爲本.”(〈證治總綱〉)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仍須研究經文, 握陰陽之綱領, 最爲簡捷.”(〈證治總綱〉)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6. “明乎陰陽, 則表裏, 虛實, 寒熱之病, 一目了然矣.”(〈治病須明陰陽虛實論〉)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7. “臨證者但以審陰陽盈虛, 消長之理, 雖病狀變化莫測, 不外陰陽偏虛之患.”(〈治病須明陰陽虛實論〉)

②경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장.

그는 경전을 대할 때는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래 의사들이 의서를 읽되 변통의 의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傷寒論》에만 집착하여……常과 變의 이치에 밝지 못하다. 왕왕 脾胃病에는 방향성의 溫燥한 약이 좋고 苦寒한 약으로 공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론에 얽매이니, 곧 애초에 이론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近見讀書不達變通之醫, 拘執《傷寒論》, 泥於一日太陽……而不明常變之理. 往往拘執脾胃宜於芳香溫燥, 務戒苦寒攻劑, 乃未究立法之旨耳.)” (<證治總綱>)<sup>34)</sup>

“《傷寒論》의 成法에 얽매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不得拘執《傷寒》成法以誤人哉.)” (<治病必審四時用藥說>)<sup>35)</sup>

그는 당시의 의사들이 의서를 읽되, 의서의 본래 취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고지식하게 의서의 문구에만 얽매어 치료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즉 의서를 볼 때는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해야지 지엽적인 것에 구애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는 융통성 있는 사고와 유연한 대처를 요구한다.

“尚在常理之中, 更有變出非常” / “皆未可常理測焉” / “臨症不可拘守恆情, 尤不可固執成見, 要在辨證的而用藥當.” (<證治總綱>)<sup>36)</sup>

질병을 치료하다보면 항상 변수가 있게 마련이므로, 하나의 원칙만을 내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확한 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경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금물이며, 경전도 틀릴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경문을 수정해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맹자의 “盡信書不如無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內經》이나 《難經》의 경문 가운데 오류가 많다<sup>37)</sup>고 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內經》의 “秋傷於濕, 冬生咳嗽”을 예로 들며, ‘濕’字는 傳寫 과정의 오류가 분명하므로<sup>38)</sup>, ‘燥’字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경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융통있는 접근을 주장하였다. 그의 경전에 대한 비판적 계승 정신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온병 관련 학술사상

### (1) 상한과 온병을 구분

원반은 외감병을 類傷寒과 正傷寒으로 구분하였는데, 正傷寒은 겨울철 혹독한 寒氣에 상한 것이고, 類傷寒은 상한과는 다르게 四時의 온난하거나 습하거나 건조한 기후 등 비교적 온열한 성질의 사기에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春溫、夏熱、濕溫、秋燥、冬溫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sup>39)</sup> 아울러 당시

34)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

3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3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

3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0. “孟子云: “盡信書不如無書”一語, 推而至於《內》、《難》經文, 其中謬誤, 不可枚舉.” (<胃爲生化之源記>)

3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1. “更有誤於經文者, 如“秋傷於濕, 冬生咳嗽”, 細心研究“濕”字, 的承傳寫之訛.” (<治病必審四時用藥說>)

3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9-10. “當天暑地熱, 人身之氣亦發越於外, 腠理開, 汗大泄, 人之脾胃因之虛弱, 外因濕蒸之酷尤易感受, 隨人身陰陽之偏盛而爲病. 如奔走長途, 受烈日之威, 則爲中暑.” (<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至於冬令, 嚴寒肅殺之氣爲傷寒者, 仲景言之詳矣. 惟陽氣潛藏於內, 天時晴燥, 雨雪稀少, 乃成冬溫之證.” (<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若時值初春, 嚴寒將退, 風木司權, 其氣善升而近燥, 多犯上焦.” (<治病必審四時用藥說>)

외감병 가운데 正傷寒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類傷寒에 속한다고 하였다.<sup>40)</sup>

또 正傷寒에 대해서는 이미 張仲景이 자세히 밝혀 놓았으나, 類傷寒에 대해서는 前人이 발명한 바가 없어 의사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sup>41)</sup>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類傷寒의 범주에 溫疫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類傷寒의 범주에 온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온연 중에 온열과 온역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보면 온역 역시 眞傷寒에 속하지 않으므로 類傷寒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시의 온열병과는 또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역을 類傷寒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로 볼 때, 원반은 외감병을 眞傷寒, 類傷寒, 溫疫으로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사기의 침입경로, 병의 전변과정, 진단 등의 실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온역이나 온열을 상한과는 확연히 다른 서로 비슷한 부류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실제로는 외감병을 상한과, 온역을 포함한 온열병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類傷寒에 온역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온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는 상한과 온병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상한은 겨울의 혹독한 寒氣가 체표를

통해 침입하는데 반해, 온병은 사시의 온열한 성질의 기운이나 “天地間至惡之氣”, “戾氣” 등의 사기가 口鼻를 통해 침입한다고 보았다.<sup>42)</sup>

그는 상한과 온병의 기전도 다르다고 보았다. 상한은 寒邪에 의해 체표의 양기가 손상된 것이고, 온병은 熱邪에 의해 내부의 陰液이 소모된 것이라고 보았다.<sup>43)</sup>

공교롭게도 원반의 이러한 인식들은 吳又可의 견해와 일치한다. 오우가 역시 ‘眞傷寒’이라는 말을 써서 상한을 한정하면서, 상한과 온역이 전혀 다른 성격의 질병이므로 중경의 법으로 온역을 치료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44)</sup>

또 오우가는 온역의 원인이 사시의 풍한서습의 기운이 아닌 별도의 ‘異氣’ 또는 ‘癘氣’이며, 이것이 口鼻를 통해 인체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5)</sup> 이러한 오우가의 ‘癘氣說’ 또는 ‘異氣說’은 온역의 병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서 溫病學史에서 획기적인 발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반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두 사람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유형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인식에 도달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8. “直待春升, 木氣發透, 風陽化溫, 是爲風溫. 其氣近燥, 多犯上焦.”(《溫熱溫疫辨》)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1. “直迨深秋, 燥令大行, 往往盛於秋末, 冬初, 人在氣交之中, 受其戾氣, 伏而不宣, 是爲秋燥.”(《治病必審四時用藥說》)

4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至於冬令, 嚴寒肅殺之氣爲傷寒者, 仲景言之詳矣.”(《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近世以來, 四時感症, 類傷寒多, 正傷寒罕見也. 夫類傷寒者, 春溫、夏熱、濕溫、秋燥、冬溫是也.”(《溫熱溫疫辨》)

4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1. “嗚呼! 自古迄今, 無人發明春溫、濕溫、冬溫之奧蘊, 致誤於庸俗者, 不啻恒河沙數矣.”(《治病必審四時用藥說》)

4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要知此邪乃天地間至惡之氣, 必須除惡務盡, 以大承氣爲主方.”(《溫熱溫疫辨》)  
“此病邪由口鼻吸入者多.”(《溫熱溫疫辨》)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1. “人在氣交之中, 受其戾氣, 伏而不宣.”(《治病必審四時用藥說》)

4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7. “譬如傷寒, 是表陽傷也, 用辛溫以散表寒; 若溫熱, 是裏陰熾也, 用苦寒以勝裏熱.”(《治病須明陰陽虛實論》)

44) “時師誤以傷寒法治之, 未嘗見其不治也.”(《溫疫論·序》)  
“仲景雖有《傷寒論》, 然其法始自太陽, 或傳陽明, 或傳少陽, 或三陽竟自傳胃, 蓋爲外感風寒而設, 故其傳法與溫疫自是迥別.”(《溫疫論·序》)

“及其臨證, 悉見溫疫, 求其眞傷寒百無一二.”(《溫疫論·序》)  
“傷寒, 感冒, 均系風寒, 不無輕重之殊. 究竟感冒居多, 傷寒希少. 況溫疫與傷寒, 感受有霄壤之隔.”(《溫疫論·序》)

45) “疫者感天地之癘氣.”(《溫疫論·原病》)  
“夫溫疫之爲病, 非風、非寒、非暑、非濕, 乃天地間別有一種異氣所感.”(《溫疫論·序》)  
“邪自口鼻而入”(《溫疫論·原病》)

## (2) 溫熱과 溫疫을 구분

袁班은 상한과 온병을 구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온병을 온열과 온역으로 구분하였다. 별도로 <온열온역변>을 저술한 것만으로도 그의 의증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편에서 온역의 증치를 설명한 부분 뒤에 이어서, 온역이 “無疫之溫熱”과 분명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sup>46)</sup>고 하였다. 여기서 “無疫之溫熱”이라 함은 곧 전염성이 없는 일반적인 온열병을 말하는 것이다. “釀成疫癘, 互相傳染”(溫熱溫疫辨)<sup>47)</sup>라 한 것을 보면 분명 온역의 전염성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전염성의 여부로 온역과 온열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溫熱은 사시의 온열성 사기가 인체에 침입하여 생기는 병으로, 겨울의 冬溫, 봄의 春溫, 여름의 中暑, 長夏의 濕溫, 가을의 秋燥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sup>48)</sup> 반면에 온역은 계절과 관련이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至惡之氣”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惡氣”도 아니고 “至惡之氣”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온역의 위중함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역과 온열의 원인이 애초에 다를음을 인식한 것이다.

冬溫, 風溫, 春溫, 濕溫, 中暑, 秋燥 등의 온열병은 사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발생 시기나 증상이 계절적인 특징을 갖지만, 온역은 발병 시기나 증상에서 계절적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證治에 있어서도 온역은 병정이 신속하여 초기부터 裏熱證이 나타나 承氣湯 위주로 치료한다고 주장했다.<sup>49)</sup> 반면, 온열은 초기에 身熱, 咳嗽, 微惡寒,

胸悶, 氣促, 咽痛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처방은 각 계절성 열병에 대한 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杏蘇飲, 蔥豉湯, 黃芩湯 등에 荊芥, 薄荷, 牛蒡子, 桔梗, 連翹, 金銀花, 杏仁 등의 가벼운 약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그는 온열과 온역이 그 원인이 다르고, 전염성의 유무가 다르며, 증상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 (3) 溫邪의 침입경로를 밝힘.

袁班은 “此病邪由口鼻吸入者多.”(溫熱溫疫辨)<sup>50)</sup>라고 하여, 온역의 사기가 대부분 口鼻를 통해 침입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溫熱의 사기는 “대부분 상초를 침범한다(多犯上焦)”라고 하였다.

“양기가 상승하는 봄에 이르러 木氣가 투발하면 風陽이 溫邪로 변하는데 이것이 風溫이다. 이 기는 燥氣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상초를 침범하여, 身熱, 咳嗽, 胸悶, 氣促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薄荷, 牛子, 桔梗, 杏仁, 大貝, 瓜蒌皮 같은 清宣輕劑가 마땅하다.(直待春升, 木氣發透, 風陽化溫, 是爲風溫. 其氣近燥, 多犯上焦, 致有身熱, 咳嗽, 胸悶, 氣促之症. 法宜清宣輕劑, 如薄荷, 牛子, 桔梗, 杏仁, 大貝, 蒌皮之類.”(溫熱溫疫辨)<sup>51)</sup>

“초봄에 매서운 한기가 물러나고 풍목의 기운이 주관하게 되면, 그 기가 상승하고 燥氣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상초를 침입한다.…… 輕清한 심질의 약으로 肺衛를 清肅한다.(若時值初春, 嚴寒將退, 風木司權, 其氣善升而近燥, 多犯上焦. …… 取清輕之味清肅肺衛.”(治病必審四時用藥說)<sup>52)</sup>

4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8. “余之心得經驗, 無誤之秘法也, 然則與無疫之溫熱有間, 未可混淆以誤人者.”(溫熱溫疫辨)

4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4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8. “夫溫熱者, 天地之常候也.”(溫熱溫疫辨)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夫類傷寒者, 春溫、夏熱、濕溫、秋燥、冬溫是也.”(溫熱溫疫辨)

4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此症初起, 多見惡寒肢冷, 舌苔黃膩, 神識呆鈍, 或邪熱下迫, 每多自利, 所下幾微, 最易惑人.”

“大劑攻下”(溫熱溫疫辨)

5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5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8.

溫邪가 口鼻를 통해서 침입하며, 대부분 上焦를 먼저 손상한다고 주장하였는데, 口鼻를 통해 사기가 침입한다는 점은 又可와 그 견해가 같다. 그러나 상초를 먼저 손상한다고 본 것은 又可와 다른 점이다. 又可는 사기 口鼻를 통해 들어온 후 膜原에 잠복했다가 아홉가지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sup>53)</sup>

그의 “多犯上焦”설은 葉天士의 “溫邪上受, 首先犯肺”와 오히려 가깝다. 그가 “多犯上焦”라 하고, 또 “清肅肺衛”이라 한 것을 보면, 온사가 상초 폐의 衛分으로 침입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사의 침입경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동시대의 오우가에 앞서며, 오히려 100여년 후의 섭천사와 일치하고 있다.

(4) 온병의 전변과정을 제시함.

그는 섭천사에 앞서 위기영혈의 전변과정을 인식하였고, 順傳과 逆傳 개념을 제시하였다. 섭천사는 『外感溫熱篇』에서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 “衛之後方言氣, 營之後方言血”<sup>54)</sup>이라고 하여 溫邪가 口鼻를 통해 들어와 먼저 肺를 상하는데, 衛-氣-營-血의 전변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천사가 온병의 전변과정을 위기영혈로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보다 100여년 앞선 시기의 袁班이 이미 그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溫邪가 口鼻를 통해 침입하여 상초를 주로 해치며, 이 때는 輕淸한 성질의 약으로 肺衛를 淸肅해야 하는데, 만일 의사가 신온한 약을 오용하여 시일을 끌면 점차 영분으로 사기가 들어간다고 하였다.

“오래 지체하거나 잘못 치료하면 營分으로 옮겨간다. 辛溫解表法을 오용하면 衄血, 咯血이 생기고, 심하면 노채가 된다.(久

延失治, 轉入營分. 誤用辛溫成法, 多致衄血咯血, 甚則成癆.)” (<溫熱溫疫辨>)<sup>55)</sup>

“만일 오치하거나 시일을 지체하면 점차 榮分으로 들어가며, 순전과 역전의 증후가 있다. 근래 시중의 실력없는 의사들이 증경의 六經論治만을 고집하여 무턱대고 辛溫한 약으로 表散하여 음액을 손상함으로 인해 神昏, 鼾睡, 厥逆, 贅癧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심한 기침으로 각혈을 하다가 결국에는 노채가 되기도 한다. 혹은 胃가 實한데 제매에 공하지 못하여 발광, 경련, 抽搐이 출현하여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熱結旁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順傳胃府法이라 하며, 급히 공하시켜 음액을 보존해야 한다.(若失治久延, 漸入榮分, 有逆傳, 順傳之候. 近世市醫不知者, 多徒守仲景六經成法, 輒投辛溫表散, 耗液傷陰, 或變神昏, 鼾睡, 厥逆, 贅癧, 或咳甚失血, 延成癆瘵, 或胃實失下, 譫狂瘵搐, 莫救者多矣. 又有熱結旁流, 名爲順傳胃府法, 宜急下以存陰液.)” (<治病必審四時用藥說>)<sup>56)</sup>

그는 영분의 증상으로 衄血, 咯血, 神昏, 鼾睡, 厥逆, 贅, 譫狂, 瘵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후세의 영분증과 혈분증을 포괄하고 있다. 비록 섭천사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은 없지만, 분명 섭천사가 위기영혈변증체계를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袁班은 順傳과 逆傳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溫病은 口鼻를 통해서 肺나 胃로 들어가는데, 비정상적인 경우 肺病은 心包로 옮겨가는데 이를 逆傳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傳變을 順傳이라고 하는데, 上焦에서 中焦로, 中焦에서 下焦로 傳變한다.<sup>57)</sup> 이는 현대

5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53) “邪自口鼻而入, 則其所客, 內不在臟腑, 外不在經絡, 舍於伏春之內, 去表不遠, 附近於胃, 乃表裏之交界, 是爲半表半裏, 即《針經》所謂橫連膜原是也.”(<溫疫論·原病>)

54) 崔三變, 朴贊國 편저. 溫病學. 서울. 成輔社. 1989. p.208, 221.

5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8.

5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10-11.

57) 정창현.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p.82.

의 순전과 역전에 대한 해석이다.

袁班은 온병이 초기에 낮지 않으면 순전과 역전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逆傳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神昏、鼾睡、厥逆、脅、或咳甚失血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섭천사가 逆傳心包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袁班이 비록 ‘逆傳心包’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후대의 ‘역전심포’와 그 기전이나 증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順傳에 대해서는 섭천사나 오국통이 직접적으로 ‘順傳’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袁班은 ‘順傳胃府’라 하여, ‘順傳’을 직접 언급하였고<sup>58)</sup>, 대승기탕 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순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순전과 역전에 대한 현대적 인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袁班의 온병전변과정에 대한 인식은 동시대의 吳又可에 비해 상당히 앞선 것으로 후대 온병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趙觀瀾도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溫邪上受’란 말이 섭천사가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섭천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혹자는 섭천사가 이 책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천명한 것이니 섭천사에 의해서 전과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속담에 ‘나중에 온 사람이 뒷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世人僅知溫邪上受一言, 葉氏創解, 而不知葉氏前已有言之哉. 或者葉氏本此書而闡明其旨, 由葉氏傳播, 亦未可知. 諺云後來居上. 其斯之謂歟.)”(《治病必審四時用藥說》)라고 하였다.

이는 오국통의 이론에 근거한 해석이다. 비록 “順傳”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 중에서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肺病逆傳, 則爲心包; 上焦病不治, 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 即傳下焦, 肝與腎也. 始上焦, 終下焦.” 《온병조변》 중초 1조)

58) 섭천사나 오국통은 직접 순전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전’이란 말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점을 왕사옹은 정확히 지적하였다. “由上焦氣分以及中、下二焦者爲順傳. 惟包絡上居膈中, 邪不外解, 又不下行, 易於蘊入, 是以內陷營分者爲逆傳也. 然則溫病之順傳, 天土雖未點出(楊云肺與心相通, 故肺熱最易入心, 天土有見於此, 故未言順傳, 而先言逆傳也), 而細釋其議論, 則以邪從氣分下行爲順, 邪入營分內陷爲逆也.”(王士雄, 《은열경위》)

### (5)秋燥說

《素問·陰陽應象大論》을 위시한 《內經》의 여러 편에서 長夏의 기후인 濕이 가을의 본래 기운인 燥를 대신하여 “秋傷於濕”으로 되어 있다. 喻嘉言은 “濕”은 長夏에 해당하고 “燥”가 가을에 해당하므로 “長夏傷於濕”, “秋傷於燥”로 고쳐야 한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秋燥論」을 제기하고 “清燥救肺湯”을立方하였다.<sup>59)60)</sup> 喻嘉言(1585-1664 또는 1682)은 1658년에 편찬한 《醫門法律》에서 《內經》이 본래는 “夏傷於暑, 長夏傷於濕, 秋必癘”이던 것이 다섯 글자가 탈락되어 “秋傷於濕, 冬生咳嗽”가 된 것이라고 했고<sup>61)</sup>, 또 《內經》의 “秋傷於濕, 冬生咳嗽”는 문장이 탈락된 것이니, “夏傷於暑, 長夏傷於濕, 秋必癘. 秋傷於燥, 冬生咳嗽”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sup>62)</sup>.

그러나 이보다 앞서 袁班이 이미 《내경》“秋傷於濕”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治病必審四時用藥說》에서 “經文에도 오류가 있으니 예를 들어 ‘秋傷於濕, 冬生咳嗽’의 경우는 ‘濕’자를 자세히 연구하면 확실히 傳寫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更有誤於經文者, 如‘秋傷於濕, 冬生咳嗽’, 細心研究‘濕’字, 的系傳寫之訛).”라고 하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초가을에 濕蒸伏氣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清暑燥濕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秋傷於濕”이라고 하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秋燥의 원인, 증상, 치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9) 정창현. 국역온병조변. 서울. 집문당. 2010. p.164.

60) “總之《內經》六氣, 脫誤秋傷於燥一氣, 指長夏之濕, 爲秋之燥. 後人不敢更端其說, 置此一氣於不理, 即或明知理燥, 而用藥夾雜. 如戈獲飛蟲, 茫無定法示人也. 今擬此方, 命名清燥救肺湯”(喻嘉言. 醫門法律. 明清名醫全書大成. 喻嘉言醫學全書.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p.290.)

61) “《內經》本謂夏傷於暑, 長夏傷於濕, 秋必癘, 脫落五字, 遂謂秋傷於濕, 冬生咳嗽.”(喻嘉言. 醫門法律. 明清名醫全書大成. 喻嘉言醫學全書.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p.294.)

62) “《內經》秋傷於濕, 冬生咳嗽, 此脫文也. 訛傳千古, 今特正之. 曰夏傷於暑, 長夏傷於濕, 秋必癘. 秋傷於燥, 冬生咳嗽.”(喻嘉言. 醫門法律. 明清名醫全書大成. 喻嘉言醫學全書.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p.314.)

“한가을에 접어들면 燥습이 크게 행하는데, 흔히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왕성하다. 사람이 천지의 기가 교류하는 가운데서 그 사나운 기를 받았는데 이것이 잠복하여 흩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추조가 된다. 그 증상은 咳嗽, 身熱, 胸悶이 있고 심하면 譫妄, 癍厥 등의 위태로운 증상이 다 나타난다. 기후의 서늘함과 따듯함을 살피서 寒燥와 熱燥로 구분하여 치료하는데, 溫潤하거나 甘寒한 약에 가감한다.(直迨深秋, 燥令大行, 往往盛於秋末, 冬初, 人在氣交之中, 受其戾氣, 伏而不宣, 是爲秋燥. 其症咳嗽, 身熱, 胸悶, 甚則譫妄, 癍厥諸危候畢呈, 當審天時之涼暖, 而分寒燥, 熱燥之治, 藥用溫潤, 甘寒之品出入加減.”(《治病必審四時用藥說》)<sup>63)</sup>

그는 秋燥를 寒燥와 熱燥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溫潤하거나 甘寒한 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후세 오국통이 제시한 溫燥, 涼燥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6) 온병의 진단

원반은 脈診에 있어서 “左手主陰, 右手主陽”說을 제시하였다. 온열병은 열이 심해서 진맥을 손상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로 좌맥이 微弱하고 우맥이 洪大한 맥이 나타나며, 공하시켜 열을 제거하면 좌맥이 다시 회복되고 우맥이 차츰 안정된다고 했다.<sup>64)</sup>

한편 맥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舌苔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65)</sup> 심지어는 판단 기준으로 맥보다 舌苔를 신

뢰하였다.<sup>66)</sup> 특히 攻下法 사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舌苔를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67)</sup>

#### (7) 온병의 치료 : 重用攻下-承氣湯

##### ①溫熱의 치료

온병에 辛溫한 약을 잘못 사용하여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온약의 사용을 금지하였다.<sup>68)</sup> 또 상한법에 얽매이지 말고 清熱, 攻下하는 약을 과감하게 쓸 것을 주장하였다.<sup>69)</sup> 그는 구체적으로 온열의 치법을 제시하였는데, 온열의 사기가 상초에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에는 薄荷, 桔梗, 荊芥, 連翹,

強弱而斷之. 假如素無疾患, 體質強壯者, 決其脈因病變, 必視其舌苔黃濁, 燥裂, 胸腹拒按; 一經下後, 病邪漸退, 而脈亦漸起. (《辨症訂方必先審四診記》)

6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 “蓋診脈不足憑, 以脈有皮; 惟看舌苔爲準, 則以苔無皮, 顯而易見. 大抵有濁垢黃膩無津之苔, 凡見此苔, 即用下法.”(《證治總綱》)

6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必視舌苔垢膩之有無, 以定攻下之輕重.”(《溫熱溫疫辨》)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2. “又當驗其舌苔, 若焦黃燥裂, 口渴能飲者, 須用大劑清下, 如三黃承氣等法, 爲釜底抽薪之治, 切勿畏攻而留邪, 致延日久大實而有羸狀, 誤於溫補不起, 以誤人者.”(《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2. “況邪入於裏, 如賊踞畿輔內地, 非邊遠之寇可比, 急宜蕩除, 然於腹裏地方, 而行此兵凶戰危之事, 務當操必勝之權而後可.”(《證治總綱》)

68)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2. “至於風溫, 秋燥, 冬溫等證, 前人混於傷寒, 拘執傳經日數, 誤於辛溫表散.”(《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9. “近年以來, 四時感症溫熱獨多, 每憾治法仍沿辛溫, 以致不死於病而死於誤藥者, 比比皆然.”(《溫熱溫疫辨》)

69)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成冬溫之證, 須用大劑清下, 不得拘執《傷寒》成法以誤人哉.”(《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7. “傷寒, 是表陽傷也, 用辛溫以散表寒; 若溫熱, 是裏陰燥也, 用苦寒以勝裏熱.”(《治病須明陰陽虛實論》)

6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11-12.

64)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3. “推測歷驗心得, 竟是左手主陰, 右手主陽. 凡溫熱之病, 熱邪灼陰, 右手脈大, 左手脈微, 迨下盡熱邪, 左脈始起, 右脈亦平.”(《辨症訂方必先審四診記》)

65)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13-14. “近時溫疫證重者, 正爲邪制, 脈反極微如無, 當審其平昔有無宿病, 分別老幼,

桑葉, 菊花 등의 서늘하고 가벼운 성질의 약으로 肺衛分의 열을 식혀야 하며,<sup>70)</sup> 병이 발전해서 온열의 사기가 胃腑로 들어가면 급히 공하하여 진액을 보존해야한다고 했다.<sup>71)</sup> 만일 제때에 공하하지 않고 지체하면 자칫 정기가 크게 손상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sup>72)</sup>

## ② 溫疫의 치료

그는 온역을 치료할 때는 傷寒法의 日數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히 치료해야 하는데, 대체로 15일 이내에 치료해야하며, 15일이 넘어가면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sup>73)</sup>

치료는 攻下法을 위주로 하며, 처방은 大承氣湯加減法을 주로 사용하였다.<sup>74)</sup> 특히 “若患實症, 攻邪宜早”라 하여, 조기의 과감한 공하를 강조하였다. 상한 법에서 매우 신중하게 공하법을 사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조기의 과감한 공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병정의 변화가 급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때문에 당시의 吳又可 역시 공하증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신속히 공하하여 사기

를 조기에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75)</sup> 이에 대해 趙觀瀾은 “선생이 역병을 치료할 때 공하법을 중용한 것은 惡氣를 남김없이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오우가의 법과 암암리에 부합하니, 당시 각자의 지역에서 치료했던 병증이 대체로 같았기 때문이다.(先生治疫, 重用攻下, 除惡務盡耳, 與吳又可法暗合. 其時各居一境, 所治之症大略相同.)”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원반과 오우가가 조기에 공하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원반은 조기의 과감한 공하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심한 사용을 강조한다. 우선, 질병의 경중에 따라 공하의 경중을 조절해야 하는데, 舌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6)</sup> 그 다음으로 大劑를 사용할 때는 정기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점차 증량해가면서 써야한다고 했다.<sup>77)</sup> 그의 대답하면서도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6. 결론 : 《證治心傳》의 의사학적 가치

袁班은 吳又可와 같은 시기에 같은 江蘇地域에서 살았다. 당시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전염병 치료의 경험이 풍부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온열병을 기존의 《상한론》에 근거한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吳又可는 《溫疫論》을, 袁班은 《證治心傳》을 저술하였다. 두 사람

7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0. “如薄、桔、荊、防、杏、蘇、翹、貝、桑、菊、牛、蟬之類, 取清輕之味清肅肺衛”(《治病必審四時用藥說》)

71)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1. “又有熱極旁流, 名爲順傳胃府法, 宜急下以存陰液.”(《治病必審四時用藥說》)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三聯書店. 1990. 상해. 38. “若已入胃, 舌黃乾燥, 亟宜攻下.”(《溫熱溫疫辨》)

72)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9. “若熱已入胃, 便結澀赤, 舌苔黃焦垢膩, 亦宜急下存津, 切勿延久, 正傷氣弱, 反成危候.”(《溫熱溫疫辨》)

73)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切勿拘執日數”(《溫熱溫疫辨》)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37-38. “總以三候之內爲率, 若延至三候以外, 必自利紅水, 腸胃已爛, 必死無疑.”(《溫熱溫疫辨》)

74)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余治疫症, 大劑攻下, 每多獲效”(《溫熱溫疫辨》)

“以大承氣爲主方, 隨症加減”(《溫熱溫疫辨》)

75) “溫疫可下者, 約三十餘證, 不必悉具, 但見舌黃, 心腹痞滿, 便於達原飲加大黃下之.”(《溫疫論·注意逐邪勿拘結糞》)

“大凡客邪貴乎早逐”, “勿拘於下不厭遲之說”(《溫疫論·注意逐邪勿拘結糞》)

76)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7. “必視舌苔垢膩之有無, 以定攻下之輕重, 每見下去一層, 又起一層. 輕者兩三劑, 重者八九劑, 濁苔退盡, 脈平而不躁急爲准. 仍須用下, 庶免反復”(《溫熱溫疫辨》)

77)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14. “凡大攻, 大熱, 大寒之劑, 稍有疑似, 只可漸次加足, 切勿過劑傷正. 倘虛症誤下, 則禍不旋踵, 挽回莫及之勢矣, 謹之、慎之!”(《辨症訂方必審四診記》)

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일 병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온열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많다.

온역의 사기를 사시 기후와는 다른 癘氣나 惡氣로 파악한 점, 사기가 口鼻로 침입한다고 인식한 점, 기존 상한법의 사용을 반대한 점, 攻下法을 중시한 점, 진단에서 舌苔를 중시한 점 등이 공통된 것이다. 반면에 온병의 전변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吳又可는 사기가 膜原에 잠복해 있다가 아홉 가지 형태로 전변한다는 ‘疫有九傳論’을 제시하였고, 袁班은 上焦肺衛分으로 사기가 침입하여 胃腑로 順傳하거나 逆傳하여 營分이나 心包로 침입한다고 보았다. 또 溫病은 온열과 온역으로 구분하고, 사시의 온열에 대한 병기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오우가는 상한과 온역을 구분하였지만, 온역을 온열과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溫病의 이론이 오우가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다.

온병학 발달사에서 衛氣營血辨證이나 逆傳心包 개념은 섭천사가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보다 100여년 앞서 袁班이 《證治心傳》에서 이들 개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의 ‘秋燥’에 대한 논의 또한 당시의 어떤 의가보다 발전된 앞선 이론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이 보이지 않게 후세 의학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만일 이 책이 당시에 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 References

1. Zhu Bangxian, Wang Ruoshui, Zong Shen Yue. Lidaizhongyizhenbenjicheng21. Zheng Zhi Xin Chuan. Shanghai. SDX Joint Publishing Comoany. 1990.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歷代中醫珍本集成21. 證治心傳.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2. Qiu Qingyuan. Sansanyishu(the second book). Beijing. Chinese Pres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0.

- 裘慶元 輯. 三三醫書(第二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3. Wu youxing, Zheng Zhongguang. Wenyilunbu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5.  
吳有性 原著, 鄭重光 補注. 溫疫論補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 Wu Jutong, Changhyun Jeong. Wenbingtiaobian in Korean translation. Seoul. Jipmoondang. 200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醫溫病傳. 서울. 집문당. 2005.
5. Sangrong Baek. Wenleijingwei in Korean translation. Seoul. Wood&Earth. 2001.  
白上龍 譯註. 國醫보주 온열경위. 서울. 목과 토. 2001.
6. Sansub Choi, Chankuk Park. Acute febrile disease. Seoul. Sungbo-sa. 1989.  
崔三燮, 朴贊國 편저. 溫病學. 서울. 成輔社. 1989.
7. Zhu Weichang. Lengluuyihuakaozhu. Shanghai. Press of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3  
朱偉常. 冷廬醫話考注. 상해.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8. Lu Yitian. Lengluuyihua. Beijing. Chinese Pres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陸以湑. 冷廬醫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9. Liu Xianting. Guangyangzaji. Beijing. Zhunghua Book Company. 1997.  
劉獻廷. 廣陽雜記. 北京. 中華書局. 1997.
10. Yu jiajan. Yimenfal. Mingqingmingyiquanshudacheng. Yujiayanyixuequanshu. Beijing. Chinese Pres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喻嘉言. 醫門法律. 明清名醫全書大成.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 Liu Jingyuan. Study on the formation and

- development of Wenbingxue and the texts(1).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2003. 22(1).  
劉景原. 溫病學的形成與發展及文獻板本源流(1). 中醫教育. 2003. 22(1).
12. Yu lia, Zhou lia. Zhengzhixinzhuan Contribution to the science of febrile disease theory system.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4. 12(2).  
於麗雅, 周麗雅. 《證治心傳》對溫病學的貢獻.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4. 12(2).
13. Cao liming, Wang xiulian.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epidemic febrile disease of Zhengzhixinchuan. Shanxi Journal of TCM. 2009. 25(11).  
曹力明, 王秀蓮. 《證治心傳》溫病學術思想淺析. 山西中醫. 2009. 25(11).
14. Han bing, Cheng Panji. Study on the theory of the epidemic febrile disease of Zhengzhixinchuan.. Journal of Sichuan of TCM. 2012. 30(4).  
韓冰, 程磐基. 袁班《證治心傳》外感熱病學術思想探吐. 四川中醫. 2012. 30(4).
15. Wu Shaojun.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doctrine of the epidemic febrile disease of Wenyilun and Zhengzhixinchuan. a thesis for a doctorate.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9.  
吳少俊. 吳有性《溫疫論》, 袁班《證治心傳》與中醫溫病學形成的研究. 廣州中醫藥大學 박사논문. 2009.
16. Changhyun Jeong.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Onbyeongjobyeo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3. 16(1).  
정창현.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17. <http://baike.baidu.com>